# 전담팀 만들고도…보이스피싱 속수무책

## 광주경찰 13개 부서 참여 역대급 전담팀 구성에도 피해 급증
## 수법 날로 지능화되며 올 상반기 피해액만 66억여원 달해
## 은행 보초서기 등 옛 방식 대책에 "수사력 밑천 드러냈나" 비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일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다"는데도,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담팀을 만들고 동네를 돌며 전단지와 홍보포스터까지 돌리는데도, 보란 듯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발생하면서 30년 전에나 했던 '금융기관 보초서는 방식'까지 내놓았다. 경찰 수사력이 밑천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담팀 만들긴 했는데**…=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꾸렸다. 광주청 2부장을 중심으로 광주청 내 13개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역대급 전담팀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청 전담팀을 광산·서부·북부경찰 등 일선 경찰서에도 확대, 신설했다.

초반에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홍보 전단지(5만장)와 포스터(1500장)를 만들어 광주지역 463개 아파트단지와 원룸(220개), 상가(363개) 등에 뿌렸다. 소상공인연합회(11만5000명), 버스정보시스템(64개), 아파트(3만7000여세대) 엘리베이터 내부 모니터 등에는 홍보영상을 내보내며 경각심을 주는 데도 공을 쏟았다.

경찰은 열심히 돌아다녔다는데, 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만 352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했다. 매일 두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같은 기간 97건의 3배가 넘고 지난해 발생한 205건보다도 71%가 늘었다.

피해액도 엄청나다.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피해액만 66억8000만원이다. 전년도 전체 피해액(101억)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도 상반기(52.6억), 2018년 상반기(16.2억)를 훌쩍 뛰어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체감도는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날로 '업그레이드'되는데**…= 보이스피싱은 규모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누구나 쉽게 범행에 끌어들이면서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수수료 3%를 받기 위해 10대 고교생은 인터넷으로 이틀 만에 범행에 가담, 전국을 돌며 18일 만에 1억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다가 붙잡혔다. 지난 5월에는 하룻동안 광주에서만 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5명의 피해자가 69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빼앗기는가 하면,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보란 듯 경찰까지 사칭해 범행하는 대담한 범행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이 지난 4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등 12명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경우 중국 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했다.

각 팀은 통장 모집·해외·국내·국내 현금 인출팀 등으로 나눠 운영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문적으로 통장·계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수사력 한계(?), '은행 보초'까지**= 경찰의 단속과 홍보 강화에도 범죄는 늘어나다보니 경찰도 난감한 상황이다.

광주청은 최근 전담부서만으로 버거웠던지 최근 지역 내 은행에다 사복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경찰관 금융기관 고정 근무 및 예방·홍보 계획'까지 내놓았다. 수사과 뿐 아니라 기동대까지 금융기관에 투입, 존재감을 드러내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청원경찰이 있어도 피해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30년 전 방식을 답습하는 데 따른 비판이 나왔다. 광주지역 648개 은행 중 85개 은행에만 배치키로 하면서 어떤 은행을 선정할 것인지 기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지휘부의 즉흥적이고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급기야 방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관련 계획을 철회해 빈축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내에서 통화를 오래 하거나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고객, 또 직접 돈을 인출한 고객을 따라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우에 흘러내린 토사 정비 30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국지성 호우로 인해 흘러내린 토사를 정비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진도에서 숨진 동학군 지도자 유골
# 진도군 , 전주시에 돌려달라 했지만…

## "연고 근거 부족" 항소심도 패소

진도군이 애초 일본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돌려 받은 동학군 지도자의 유골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유골에 대한 연고자 권한을 내세운 진도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는 진도군이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도군은 126년 전 진도에서 효수당한 무명의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에 안장하려는 전주시 계획에 반발, 지난해 연고를 들어 유골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진도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으로 연고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진도에서 출생하고 진도에서 사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유골'이라며 유골의 신원을 밝혀주고 유가족에게 관리, 안장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는 데 있어 전주시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보다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게 진도군 주장이었다. 타향인 전주에 안장되는 것보다 고향인 진도군에 안장되는 게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골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이 유골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인 1894년 진도에서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농민군 지도자의 머리뼈로 추정되는데, 1906년 목포면화시험장 기사였던 일본인 사토 마사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고 90년이 지난 뒤인 1995년 7월 25일 북해도대 문학부 인류학교실 창고에서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유골 표면 및 첨부된 문서에는 '전라남도 진도 동학당 수괴자'라고 적혀있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이후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1996년 유골을 반환받았지만 유전자 감식 기술로도 후손을 밝혀내지 못한데다, 안장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정읍 황토재기념관을 거쳐 2002년께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왔다.

기념사업회는 또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와 협의, 전주 완산전투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도군의 반대로 유골 화장 및 봉안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골은 지난해 전주 완산공원 내 추모공간(녹두관)에 안장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기념사업회 손을 들어줬다. 장사법에 따라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고자로서 권한이 있다'는 진도군 주장은 '이유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도에서 출생한 유골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족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기념사업회보다 더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념사업회가 해당 유골의 점유자 내지 장사법에 따른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유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상청 호우예보 이틀연속 오보…지역민 불만

## 장마 끝 본격 무더위 시작

광주지방기상청이 장마철 집중호우 예보에서 이틀 연속 오보(誤報)를 냈다. 집중 호우 뿐 아니라 열대야 예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 강수량은 오후 6시 기준 광주 3.2㎜, 영광 5.6㎜, 함평 2.5㎜, 곡성 54.5㎜, 구례 18㎜, 함평 2.5㎜, 담양 23㎜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께 "시간당 50~8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광주와 영광·함평·장성·구례·곡성·담양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기상청의 전망자료는 빗나갔다. 기상청 예보가 무색하게 적은 강수량으로 예비특보도 모두 해제됐다.

전날인 29일에는 반대였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께 전망자료를 내고 광주·전남에 5~30㎜의 적은 비가 내리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시간당 강수량만 영광 66.4㎜, 광주 조선대 53.5㎜를 기록하는 등 장대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부랴부랴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에 호우특보를 발효했지만 이미 75.5㎜, 시간당 최대 53.5㎜, 비가 쏟아지고 난 후였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이날 하루 100㎜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침수와 붕괴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정확한 예보가 29일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영광을 비롯, 목포·영암·무안·해남에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은 한 줄의 예보조차 하지 않았다.

기상청 예보가 연거푸 오보 행진을 벌이면서 "양치기 소년 예보"라는 비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에는 애초 북태평양 고기압 북상으로 장마전선이 밀려나 광주·전남에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가 약해 많은 비가 내렸고 30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31일을 끝으로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8~9월 광주·전남지역은 평년(23.8도)보다 0.5~1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폭염예상일수는 광주 20~25일, 전남 12~17일, 열대야 예상일수는 광주·전남 17~22일로 평년보다 많이 더울 것으로 예측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경찰, 디지털 성범죄 4개월간 125명 검거

경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유포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4개월 간 3명을 구속하는 등 125명을 검거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걸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지난 3월 가동한 결과, 25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25명을 검거했다.

125명 중 음란물 구매자가 88명(70%)로 가장 많고 청소년 노출 영상을 받아 제작한 뒤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10대를 구속하는 등 판매·제작 등을 한 9명(8%)도 붙잡혔다.

피의자 연령대는 54명(43%)이 10대였으며 20대 53명(42%), 30대 13명(13%), 40대 이상 5명(5%)을 차지했다.

경찰은 광주에서는 'n번방' 사건 같은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성착취물 등 불법 성적영상물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삭제·차단, 피해자 신변보호, 법률·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